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 118:1)

2023년 교회학교 성탄축하 찬양예배 “참 빛, 세상을 비추다”

일시: 12월 10일(오늘) 찬양예배시 장소: 본당
주관: 교육위원회 (영아부~고등부)

새가족 환영회

일시: 12월 10일(오늘) 13:40 장소: 베다니홀
대상: 2023년 9월~11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

일시: 12월 17일(주일) 찬양예배시
대상: 신임 서리 집사

2023년 성탄축하 특별찬양

일시: 2023. 12. 22(금) 금요집회시 장소: 본당
주관: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곡명: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제1부(예언과 탄생)
및 제2부 마지막 곡(할렐루야)

순모임 방학 안내

2023년 12월 17일 ~ 2024년 1월 28일 (6주간)

봉사위원회 봉사자 모집

봉사시간: 주일 종일 또는 시간대별 선택
지원방법: 봉사위원회 및 차량안내부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8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생명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자연스런 마음입니다. 소멸해가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제직회 개최

일시: 12월 17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상: 본 교회 시무장로, 교역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안건: 2023년 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

성탄트리 사진 컨테스트

기간: 12월 17일(주일)까지
내용: 경관 조명과 잘 어울리는 성탄 트리 사진 제출
제출 방법: 구글폼으로 링크 접속하여 제출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협조 안내

공사기간 중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2층 폐쇄: 11월 6일(월) ~ 12월 10일(주일) 주일 주차 불가
지하1층 폐쇄: 12월 11일(월) ~ 12월 30일(토) 주일 주차 불가

2024년 충현교회 사역훈련 제6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 주간충현 5면 참조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기간: 12월 31일(주일) 까지

1. 남사역반 ① 주일반 (16:30~19:00) ② 목요일반 (19:00~21:30)
2. 여제자반 ① 수요일반 (14:30~17:00) ② 목요일반 (19:00~21:30)

2024년 충현교회 제7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 배우자 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 및 모집: 12월 24일(주일) 까지

모집안내

1. 남제자반

- ① 주일 16:30~19:00
② 목요일 19:00~21:30

2. 여제자반

- ① 화요일 10:00~12:30 ③ 목요일 10:00~12:30
② 수요일 14:30~17:00 ④ 여제자 65+반 (수 14:30~17:00)

3. 여직장인반

- ① 화요일 19:00~21:30
② 토요일 10:00~12:30

기다림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18:10-12)



성탄절 4주 전의 주일부터 성탄절 전야에 이르는 대강절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차분하게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은 어른들도 기다림에 약한 모습을 종종 보이는 듯합니다.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신한 이메일이나 문자에 대하여 빨리 회신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 정도로 신속함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성품과 기다림의 미덕에서 좋은 신앙이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의미와 기다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집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며 다시금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은 후, ‘내가 고향 친척 아버 집을 떠날 때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음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길이 환히 보일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곳도 모르는 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 기다림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에 담겨진 의미

대학병원의 대기실을 살펴보면, 곧 진료를 받을 사람의 명단과, 보다 더 기다려야 할 사람의 명단이 떠 있는 화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료 때까지 소요될 시간을 예상해보면, 기다림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안내가 있으면 기다림이 보다 쉽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안내판(이정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그들의 생애 안에 끝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약속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한 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졌기에, 무려 400년이 넘는 기다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성취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은, 창과 화살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막아주신다는 의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다림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 15:4)”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시리라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그 때, 아들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19)”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90세가 될 정도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 아들 얻기를 거의 포기할 정도로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마침내 아들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세상의 평범한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긴 기다림을 거쳐 얻은 아들이 조금 자라나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 2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75세의 무렵에 이삭을 낳았다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다림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 3:16)”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을 통하여, 그들을 기다림의 조상이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까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 8:56)”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됨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기다림이 후계자가 될 아들에 대한 기다림의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한 기다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해방의 날이자, 신원의 날이며, 심판받는 두려운 날인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심으로 주의 날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전 1:7)”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를 신앙의 초점으로 삼아, 이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타나다’는 언뜻 평범한 단어로 보이지만, 신약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킬 때는 마지막 날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성경이 교훈하는 기다림의 성품을 익혀가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딤후 2:13)” 소망이 복스럽다는 성경의 표현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주 간의 대강절 기간 동안, 기다림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조차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글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Ancestor of Waiting,
Abraham and Sarah

(Genesis 18:10-12)

Rev. Kyu Sam Han

Advent, which is from Sunday four weeks before Christmas to the Eve of Christmas, is meaningful in that we ruminate about the implications of Christmas and that we prepare and wait calmly for Jesus' coming. The image of awaiting impatiently is often found in children, but these days, even adults seem to show the image of weakness in awaiting. It's because we are living in a society that requires promptness to the extent that it goes outside of the bounds of decency if we do not reply immediately to the received e-mail or text messages through a mobile phone. However, the Bible says good faith derives from the character that knows how to anticipate well and the virtue of waiting. That's why I'd like to share with you the meanings and ways of awaiting focusing on figures from the Bible four times during Advent season. The first characters that I want to observe are Abraham and Sarah. The waiting of Abraham and Sarah began with the moment when God called them. "Now the Lord had said to Abram: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Gen 12:1)' Obeying God's word, Abraham got out of his father's house, stayed in Haran, and waited for the word again. After Terah passed away, God said, 'Just as you got out from your family and your father's house,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Despite not knowing where to go, Abraham obeyed the word. You can think if you only receive God's calling, all the ways of your life will be shown brightly, however, like Abraham, there is a moment when we should go forward without knowing where to go.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sha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I will curse him who curses you;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Gen 12:2-3)" Abraham endured the long time of anticipation holding the covenant of God. That's why we call Abraham and Sarah whose faith began with obedience to the calling the ancestor of waiting.

The implication contained in waiting

Examining a waiting room at a university hospital, we can find a screen showing a list of people who are to receive treatment soon and a list of people who have to wait longer. If you can predict the time that is to spend till the treatment, waiting is much easier. Because awaiting is much easier if there is a guide, God allowed Abraham and Sarah the information board (the land mark) in order that they can endure waiting. Abraham's and Sarah's waiting was so long that it seemed not to be finished in their lifetime. The covenant God made with Abraham,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was fulfilled after Moses's Exodus with his people and at the time when Moses' successor Joshua entered the land of Canaan, so the covenant was accomplished after about 400 years of waiting. "After these thing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m in a vision, saying, '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Gen 15:1)' The reason that Abraham could believe and wait for the covenant to be accomplished even though it seemed to take so long to be accomplished was that there was God's landmark that said 'Do not be afraid', 'I am your shield', and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I believe that the same covenant as that of Abraham will be present to you and me who are living lives of waiting in God. Since the covenant that God will be our shield means God will defend us in person from sword and spear attacks, God's plan for saving us through Jesus is contained. I hope you remember the word, 'Do not be afraid' and the covenant that God will be our great rewards can be a great force in accompanying God.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saying, 'This one shall not be your heir, but one who will come from your own body shall be

your heir.'"(Gen 15:4)" I think Abraham was convinced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God would indeed give a son. But it was not for Abraham to gain the son immediately when he was convinced of the covenant of God. "Then God said: 'No, Sarah your wife sha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for an everlasting covenant, and with his descendants after him.(Gen 17:19)"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braham was 99 years old and Sarah was 90 years old, so almost giving up waiting to get a son, God gave a name of the son He would give Abraham and let him get a son at last. Unlike an ordinary story of the world that after a long waiting he could get a son that he had wanted, God ordered Abraham to dedicate Him the son whom he had got by awaiting so long when he grew up a little(Gen 22). If Abraham gave birth to Isaac at the age of around 75 when Abraham got out of Ur of the Chaldeans, he might not have been able to dedicate his son to God, but through the obedience of waiting Abraham could obey God's command of offering the son. "Now to Abraham and his Seed were the promises made. He does not say,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your Seed,' who is Christ(Gal 3:16). God established Abraham and Sarah as the ancestor of waiting as well as the ancestor of faith and accomplished even the covenant that all nations on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Abraham. It's because Jesus came as a descendant of Abraham.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John 8:56)" Jesus, while arguing with Pharisees, said Abraham and Sarah saw the coming of Messiah in the course of their waiting. That is, transcending the level of waiting for their heir, they realized their waiting was the anticipation for the history that God's will would be accomplished through Jesus.

How to wait

People in the Old Testament period waited for 'the Lord's Day' that is a day of liberation, a day of avenge and a dreadful day of judgement. The Lord's Day was fulfilled by Jesus'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offering himself to the cross, ascending to heaven after resurrection, and reigning from the heavenly throne. "so that you come short in no gift, eagerly waiting for the revel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1Cor1:7)" Saints who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New Testament should make 'the time of the Lord's revelation' a focus on their faith and live longing for it. The word 'revelation' at a glimpse seems to be an ordinary word, but when it refers to the resurrected Lord in the New Testament, it contains the hope of the last day. Therefore, as the saints who are looking forward to the day when the presence and glory of the Lord will appear and the Lord will fulfill everything, we should learn and master the character of waiting taught in the Bibl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Titus 2:13)" The expression of the blessed hope is very beautiful. God made us wait for the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ance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during the four weeks' Advent season, we learn the beautiful lessons hidden in the waiting, longing for Jesus' revealing, experiencing Jesus' appearance, realizing even all our problems are in Jesus and that we all accumulate beautiful virtues in the hope of waiting.

영역·이울의

제5기 사역훈련생 소감문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익혔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료 이후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고,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 갑자기 분주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훈련을 받기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하며 예배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큐티를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유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복음의 증거자요, 주님을 닮은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주어진 역할을 각기 담당하듯, 우리도 각자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되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과, 은사는 소망하고 노력하면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감당할 수 있을 사역의 영역을 스스로 구분하고 제한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분량과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게 하시어,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주시는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심도있는 훈련과정이 벽чал 때도 있었고, 수많은 결단은 있었으나 행함이 뒤따르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모든 훈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부족한 저를 한걸음 더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교구 채은미 권사

작년에 조금씩 대면 예배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대면 예배만 열리면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로 달려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어느새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이러면 안 된다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다. 이런 나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더 컸기에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작년에 1차적으로 제자훈련을 받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로 올해 사역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역훈련을 시작하고 보니 제자훈련과는 다르게 인원이 16명이나 되어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다. 사역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닥친 상황 속에, 예전 같았으면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앞서 사역반을 내려놓았을 텐데, 원망과 불평보다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예민함을 주심에 감사했다. 사역반을 포기하기보다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차근차근 안정을 찾아가게 하셨다.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훈련은 MT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 다른 성품의 16명이나 되는 지체들이 모여,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과 적용을 통해 도전받고 발전시켜가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성숙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장으로 세워진 부담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본이 되는 사역반임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몸 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기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 내가 갖지 못한 서로 다른 은사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우상의 나라, 일본에 찬양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사역반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한다.

나는 찬양을 잘하지 못함에도 팀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팀원 한 명 한 명의 은사와 기량을 찾아내게 하시며 서로 채우며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특별히 우리 사역반 문진호 목사님의 찬양 지도와 보내는 선교사로서 팀원들이 힘써 행한 기도의 응원 덕분에, 갈 바를 몰라 헤매던 팀은 일취월장할 수 있었고, 그 모습에 더 큰 은혜와 아름다운 사역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인원이 많아 빼먹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이 되는 우리 사역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교구 최지숙 권사

2024년 제6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사역 훈련은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 중에서 교회 내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특별히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 주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역 훈련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로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 훈련은 교역자와 동역하며, 목회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훈련입니다.

사역훈련 지원 자격

- 1. 본 교회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성도
- 2. 현재 순 모임에 꾸준히 출석 중인 성도
- 3. 사역훈련 수료 후 순장 및 기타 평신도지도자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성도
- 4. 훈련에 집중하기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성도
- 5. 사역훈련의 모든 내용을 온전한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성도

회비

90,000원
(교재 및 필독도서비 포함/오리엔테이션 시 납부)

신청방법

신청서 배부 및 제출: 사무국에서 받아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내에 제자훈련교역자 및 교구교역자의 서명을 받아서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훈련시간 안내(1년 28주과정)

- 1) 남자사역반 : 주일반(16:30~19:00), 목요일반(19:00~21:30)
- 2) 여자사역반 : 수요일반(14:30~17:00), 목요일반(19:00~21:30)

훈련교재

- 1. 사역 훈련 I: 성령, 새 생활의 열쇠
필독도서: 참된 자유, 내가 만든 신
- 2. 사역 훈련 II: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필독도서: 청지기 수업
- 3. 사역 훈련 III: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필독도서: 영적 리더십, 귀납적 큐티,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모집기간: 12월 10일(주일)~31일(주일)까지

훈련생 발표: 2024년 1월 7일(주일) *주간충현 게재

사역훈련 지원자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는 없습니다.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2024 충현교회 제6기 사역훈련 일정

주	일자	과	진도
2/3(토) 오리엔테이션			
2/16(금) 사역훈련 개강식			
1	2/18	1권 1과	정죄는 끝났다
2	2/25	1권 2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3	3/3	1권 3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4	3/10	1권 4과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5	3/17	1권 5과	확실한 두 가지 보증
3/24 고난주간 및 학습기간			
6	4/7	1권 6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7	4/14	2권 1과	교회란 무엇인가?
8	4/21	2권 2과	교회의 존재 이유(1):예배
9	4/28	2권 3과	교회의 존재 이유(2):훈련
10	5/5	2권 4과	교회의 존재 이유(3):증거
11	5/12	2권 5과	제자의 자격(1):전적 위탁자
12	5/19	2권 6과	제자의 자격(2):증인
13	5/26	2권 7과	제자의 자격(3):종
14	6/2	2권 8과	몸의 지체와 상호사역
15	6/9	2권 9과	사역의 장을 찾으라
16	6/16	2권 10과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6/23~8/11 여름방학 및 단기선교·동역교회 전도			
17	8/18	3권 1과	소그룹 성경공부의 교육환경
18	8/25	3권 2과	소그룹 성경공부와 리더십
19	9/1	독서발제1	내가 만든 신
20	9/8	독서발제2	청지기 수업
9/15 추석연휴			
21	9/22	독서발제3	영적리더십
22	9/29	3권 3과	귀납적 성경연구 개관
23	10/6	3권 4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1): 관찰
24	10/13	3권 5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2): 해석
25	10/20	3권 6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3): 적용
26	10/27	3권 7과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질문과 경청
27	11/3	3권 8과	소그룹 교재 인도법
28	11/10	3권 9과	소그룹 견습과 평가 및 종강모임
11/29(금) 제자훈련·사역훈련 수료식			

일대일 제자 양육 영성훈련 소감문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문없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받아들이며 살아온 저에게도 성경공부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님의 섭리가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좋은 멘토인 김명희 권사님을 만나게 하였고, 성경 공부를 40여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때 했던 분반 공부 같은 성경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로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었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마다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들으니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아는 힘에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고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제자 양육으로 얻은 가장 큰 변화를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할머니의 죽음 이후 가지게 된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치유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은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실로서의 확신을 주었고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이상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양육 과정 종료 후 일대일 제자 양육을 했던 다른 멘토, 동반자분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영성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과정을 완료한 분들이 들려주시는 후기에는 공통점이 뚜렷하였는데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한 깊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하여 신앙적 성숙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처한 상황 모두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다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적으로 깊게 교류하는 멘토-멘티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 멘토들과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멘티들을 이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입각한 강력한 믿음과 천국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며, 저의 신앙적 멘토이신 김명희 권사님을 포함하여 일대일 제자 양육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멘토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교구 김가현 집사

모태신앙이지만 성인이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은 기간도 길었고, 다시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냥 몸만 왔다갔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못해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겹치던 와중에 욕기를 읽게 되었고, 동시에 1:1양육 프로그램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1:1양육 동반자과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16주라는 기간에 지레 겁먹고 너무 즉흥적으로 선부른 짓을 한건 아닌가 솔직히 후회를 하며 신청을 무릎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왕 신청한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교육을 마쳤습니다. 먼저 1:1양육 동반자과정 기간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이 오며, 시험도 당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희생해야하는 것도 많고 힘든데 왜 믿어야 하는건가요?” 같은 필터 없는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시간 내주시고 중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교육의 은사로 섬겨주신 박형숙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양육을 받으면서 감사하게도 박형숙 권사님의 권면으로 중보기도 훈련과 서리집사 교육까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던 제가 평일과 토요일까지 교회에 나오려니 사실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모든 교육을 마치고난 지금은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과정이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음을 깨달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등 성경공부를 하고 여러가지 기도제목도 생각하면서 적어보고 또 함께 기도해주셔서 응답받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충현기도원에서 진행한 영성훈련은 참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1:1양육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제 자신을 보고 교육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서 제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긍정 의미) 같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셨기에 무사히 양육을 마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은 십일조 하듯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한 십일조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한 저는 앞으로 또 시험에 당하고 시련에 부딪히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양육 동반자과정에서 배우고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이전보다 빠르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청년2부 김주원 자매



2023년 제2차 유아세례식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 바로 성장하도록 먼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도록 저부터 먼저 바로 서려고 결단했습니다.

이노아 아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지라, 유아세례는 막연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단순히 여길만한 과정이 아님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닌, 잠시 맡겨진 생명이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많은 영아부 친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더 기쁜 자리였습니다. 기도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크는구나 싶어서 울컥하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도 본이 되지 못한 부모인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바로서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문답, 세례식 준비해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정로운 엄마

아가가 나중에 커서 엄마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유아세례였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리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엄마아빠로서 강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고 기도합니다.

박리아 엄마

아이에 대한 내 사명감,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집니다.

김단우 엄마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의 과정부터 이 아이의 참된 부모님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인 지금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유아세례가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양육하며, 아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방도윤 엄마

이 작고 연약한 저희의 아이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성령님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며 온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을 닮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진서 엄마

하나님께서 유아세례를 통해 믿음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구주를 내 주라 고백할 때까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비치는 거울이라는 말처럼,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이도 그 길을 닦아 가리라 생각합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영이가 되길 바랍니다.

장하영 엄마

저희 가정에게 유아세례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부부가 될 수 있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이와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례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영광 엄마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도건 엄마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에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재하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 순위가 되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송재하 아빠

봉사위원회 봉사자 모집

봉사는 교회 사랑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1) 차량안내 봉사자

역할 및 인원: 주일 입출차 안내 및 주차 관리 00명
봉사시간: 주일 종일 또는 시간대별 선택 ①8:00~9:00(1부예배 전) ②10:00~11:00(2부예배 전)
③12:00~13:00(3부예배 전)

지원방법: 차량안내부(지하1층 주차장 입구) 방문

문의: 부장 신현욱 장로(010-31374-0879) / 차장 최흥섭 집사(010-5357-0040)

(2) 에너지 절전 봉사자

역할 및 인원: 각 호실 소등 및 냉난방 온도 관리 8명 봉사시간: 교구모임 후 15:00~15:20

지원방법: 봉사위원회(코이노니아홀 여자화장실 엘리베이터 옆, 구 중보기도실) 방문

문의: 위원장 박원하 장로(010-2767-7663), 간사 원성수 집사(010-4612-5311)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자격: 교회등록 교인으로 기악전공자 또는 일정수준이면 됨

시간: 8시 등단, 1부(9시) 예배 담당

모집기간: 12월 3일(주일) ~ 12월 30일(토)

문의: 임마누엘 찬양대 오케스트라 반주자 김신영(010-3439-4895) / 총무 한정석(010-3614-2875)

통일선교기도회

일사: 2023년 12월 17일(주일) 16시 40분~17시 40분 장소: 베다니홀

강사: 그날교회 허남일 목사 (탈북민교회)

군 전도회 총회

일사: 2023년 12월 10일(오늘) 12:10 장소: 제3교육관 2층 에스더홀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따른 사용안내

11인승: 공사기간 2023.12.14 ~ 2024.1.12 (16인승만 사용가능)

16인승: 공사기간 2024.1.12 ~ 2024.2.8 (11인승만 사용가능)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담당(12/13~12/17)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2/13	수요 I	선악과로 인하여 (창 2:16-17) 이성환 목사	강성은	차지영
12/15	금요집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엡 5:1-6) 한규삼 담임목사	전영재	
12/17	주일 I	기다림의 분깃점, 세례요한 (눅 1:15-20)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이석재
	주일 II		박동진	김열환
	주일 III		강성은	최승민
	주일찬양	무엇이 보이느냐 (막 8:22-26) 선명환 목사	임진실	김영희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2/11~12/17)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1 (월)	전영재/김여현	욥 34:1-30	10교구
12 (화)	한규삼/이창희	욥 34:31-35:16	전교인
13 (수)	신경철/권태신	욥 36:1-25	전교인
14 (목)	박영환/심재천	욥 36:26-37:24	6교구
15 (금)	문진호/황한수	욥 38:1-18	3교구
16 (토)	남성경/남성경	욥 38:19-38	전교인
17 (주)	이일영/이일영	욥 38:39-39:30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윤준식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3교구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시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 양육부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12교구(르투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충현평생대학원	주간교육 (목) 오 전 11:00	충현복지관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083	김대연	기본과정	
2	2084	정지연	기본과정	
3	2085	김상준	기본과정	
4	2098	남성경	기본과정	
5	2099	양선하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류성민	청년2부	

결혼

1. 이창우 군(이종호 씨·고영애 씨의 아들)과 장서영 양(장인희 집사·전금수 권사
의 딸, 9교구) / 12월 16일(토) 15:30, 로얄파크웨딩 3층(웅산)
2. 이예찬 군(이종훈 집사·김진아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이문정 양(이준복 타고
집사·송춘희 타고 전도사의 딸) / 12월 16일(토) 12:30, 충현교회 갈릴리 홀

별세

1. 이옥순 권사(1교구) / 2일 별세, 4일 장례
2. 윤상열 성도(조예연 명예권사의 남편, 2교구/ 윤이나 성도의 부친·류성훈 성도의
장인, 11교구) / 2일 별세, 4일 장례

12월 정기당회

일사: 12월 10일(오늘) 찬양예배 후

권사회 전체 총회

일사: 12월 20일(수), 12:00,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재정위원	장철규 건축위원	이보신 새가족위원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조종민 전도위원	이상복 봉사위원	지규성 선교위원장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이행찬양대장	이창희 행정위원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함멜루안양대장	최현규 건축위원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세울위원장	허만선 총현동산이사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박원화 당회부서기	이상배 당회부서기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건축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건축위원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선교위원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새가족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멜렐찬양대장	홍순길 교육위원장
정인욱 기획위원장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찬양위원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헌금부장	박성철 예배부장	김열환 선교위원	김세중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옥 7교구장	최승민 제2교육관헌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중보기도부장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차량안내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목회연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환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예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9교구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주간총현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1교구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이일영 청년1부
이영국 새가족	남성경 고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10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

■ 합력선교사

강기엽	윤재균	윤맹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헌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	이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성	김신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열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하		